

의상관련 학과의 졸업작품전 평가에 관한 연구 — 취업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Graduation Exhibition
— A Survey of the Working Designers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박사과정 이영숙
조교수 김영인
배화여자전문대학 전통복식과
전임강사 이윤주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Yonsei Univ.
ph.D Course : Young Sook Lee
Assistant Professor : Young In Kim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Bae wha women's Junior College
Full-time Instructor : Youn Joo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IV. 요약 및 결론 |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se whether the senior students' experience of graduation exhibitions would be of any practical use when they are employed by fashion industry. To address this theme, a survey is carried out for 73 fashion designers who participated into the exhibitions.

Survey results show the graduation exhibitions are worth. Not because skills learned from the experiences are applicable to the industrial practice, but because they provide them self-confidence of finishing four year programs successfully. They responded that almost all the major subjects are very helpful in the real world. This suggests that graduation exhibitions are most effective when they requires to utilize knowledges and skills acquired from all across the major subjects.

A number of respondents want to study in private fashion institutes. However, They tended to under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technical skills learned from those institutes, for they are of very limited use for the development of ideas.

I. 서 론

현대 사회는 경제 성장이나 문화의 성숙, 사회의 정보화 등 소비자의 요구에 영향을 주어 상품의 개성화, 다양화가 이루어 졌으며, 상품의 가치가 크게 팽창하여 실용성이나 경제성 뿐 아니라 정보성, 상징성¹⁾ 또는 기호성이라는 가치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의류 산업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디자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따라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한국 최초로 가정 대학이 창설되면서 의생활 분야는 적극적으로 문화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현재 4년제 대학중 50%에 해당하는 학과가 증설되어 해마다 의상관련 학과 졸업생은 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²⁾

이들 의상관련 학과에서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디자인 교과목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조형대학 또는 예술대학으로 편입시켜 디자인의 실기를 보강하고 있다.

정시화³⁾는 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책임있는 창조작업을 뒷바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이너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의상 관련학과는 졸업후 대부분의 학생이 디자인 및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졸업작품전이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전공 교육의 실습과 전문적 기술의 연마를 유도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열기가 더욱 커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작품발표회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의상관련 학과 졸업생 중 현재 디자이너 및 MD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졸업작품전의 참여가 실제로 취업했을 때 어느정도 효용을 주는지를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전공 실기의 유용성 및 졸업작품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졸업 작품전을 졸업 작품 전시회 및 졸업작품 발표회로 분류하여 취업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졸업 작품전 당시의 상황 및 졸업 후 업무 수행시의 효용성, 재학 당시 학과목중 실무에 도움을 주는 과목과 사설 학원의 효용성,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실시 기간은 1994년 12월 3일~1994년 12월 21일 이었다.

졸업작품전의 상황 및 효용성에 관한 문항에서는 졸업작품전의 시기 및 장소, 학교의 보조 여부, 외부 전문가의 고용 여부, 졸업작품전의 실무 효용여부에 관한 항목으로 세분화 하였다.

사설학원의 효용성에 관한 문항에서는 사설학원의 참여 여부 및 이유, 사설학원의 효용여부에 관한 문항으로 나누었다.

학과목의 효용성에 관한 문항에서는 실무에 가장 도움을 준 학과목과 더 보충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누었다.

각 문항은 응답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총 73명이었으며 이중 디자이너는 54명 MD는 19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표 1>과 같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졸업 작품전의 효용성에 관한 결과

1) 졸업작품전의 참여 및 비용에 관한 문항

졸업 당시 졸업 작품전을 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졸업 작품 전시회를 한 경우가 전체의 42%로 가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분류	구 분	응답자(명)	응답자(%)
업 체	남 성 복	11	15
	여 성 복	34	47
	캐 주 얼	20	27
	유 아 복	8	11
연 령	20 - 24	23	31
	25 - 30	34	47
	31 - 34	12	17
	35 - 40	4	5
근 무 년 수	1 - 2년	28	39
	3 - 5년	28	39
	6 - 7년	13	18
	8년 이상	3	4

장 많았으며 졸업 작품 발표회가 36%, 전시회 및 발표회를 모두 한 경우가 15%였고 둘다 하지 않은 경우가 7%였다.

졸업 작품전에 든 개인별 비용은 50만원 이상을 부담한 경우가 전체의 48%로 졸업작품전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현재 의상 관련 학과의 전공 영역은 크게 의복 구성, 복식 사회학, 피복과학, 의상디자인, 기타의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비율은 학과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⁴⁵⁶⁾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 해 볼 때 대학 4학년의 많은 부분을 졸업작품전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전공영역을 모두 활용한 작품전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작품전의 비용중 학교에서 일부 보조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5%,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는 45%였다. 그러나 보조를 받은 경우 전체비용의 10%이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83%로 대부분의 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졸업작품전의 시기에 관한 문항

작품전의 시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전체의 92%가

4학년 2학기때 작품전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중 88%가 4학년 2학기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취업시기와 같으므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한 시기로는 4학년 1학기로 응답한 경우가 85%였다.

3) 외부 전문가의 고용여부에 관한 문항

졸업 작품 발표회의 경우 연출가, 모델 트레이너 등 외부인을 고용했다고 응답한 수가 33%였는데 이 중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수는 51%였다. 만족스러웠던 이유로는 학생들끼리 연출한 경우보다 시간을 절약할수 있어 학생은 자신의 작품에 좀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전문인의 노하우를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49%였는데 이유는 틀에 박힌 진부한 구성으로 기성 연출을 모방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족함이 있더라도 학생이 직접 하는 것에 더 의의 있다고 하였다.

4) 졸업작품전의 장소에 관한 문항

졸업 작품전의 장소는 82%가 교내 강당으로 응답하였으며 외부 공공기관을 이용한 경우가 5%, 호텔을 이용한 경우가 13%였다. 교내 강당을 이용한 경우 단점으로는 전시회, 발표회로서 사용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였으나 홍보가 용이하고 타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호텔을 이용한 경우는 쇼의 효과는 좋았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5) 졸업작품전의 문제점과 효용성에 관한 문항

졸업작품전 준비중 어려웠던 점은 금전 및 시간 부족과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충돌을 지적하였다.

취업을 위해 졸업전시회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한 수는 35%였으며 그 이유는 장기간 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사람이 참관 할 수 있으며 좀더 세심한 면까지 배울수 있다고 하였다. 졸업 발표회가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수는 55%였으며 이유는 의상 디자인 아이디어 전개부터 제작,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익힐수 있으며 무대 연출, 조명, 음악등의 총체적인 감각을 익힐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졸업작품

전이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66%가 직접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학생과의 협동심을 배울수 있는 기회이며 대학 생활을 마무리 하는 작업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졸

〈표 2〉 졸업작품전의 효용성에 관한 결과

문항구분	내용	응답자(명)	응답자(%)	
졸업 작품전 개최 여부	졸업작품 전시회	31	42	
	졸업작품 발표회	26	36	
	둘다 했음	11	15	
	둘다 하지 않음	5	7	
비용	1~9 만원	5	7	
	10~29 만원	17	23	
	30~49 만원	16	22	
	50~100 만원	13	18	
	100~199 만원	14	19	
	200만원 이상	8	11	
보조 여부	보조 여부	보조를 받음	40	55
		보조를 받지 않음	33	45
	보조 조 액	10%이하	33	83
		11~20%	5	11
		30%이상	2	6
작품전 시기	본인이 한 시기	3학년 2학기	4	5
		4학년 1학기	2	3
		4학년 2학기	67	92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	3학년 2학기	2	3
		4학년 1학기	62	85
		4학년 2학기	9	12
외부인 고용여부	고용 여부	고용했다	24	33
		고용하지 않았다	49	67
	고용시	만족했다	12	51
		만족하지 않았다	12	49
장소	교내 강당	60	82	
	외부 공공기관	4	5	
	호텔	9	13	
취업시 효과적인 작품전 형태	졸업작품 전시회	26	35	
	졸업작품 발표회	40	55	
	모두 효과 없다	7	10	
졸업작품전의 실무 효용 여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25	34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48	66	
작품전 준비기간중 다른 수업	제대로 이루어 졌다.	26	36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47	64	

업전시회, 발표회가 모두 효과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0%였는데 이유는 둘다 실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졸업작품전 준비 기간중 다른 교과목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64%였으며 그 대안으로 방학기간중을 이용하여 준비하거나 정규수업에 졸업작품전 준비과정을 넣는 것을 들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2. 실무에 직접 도움을 준 전공영역에 관한 결과

도규화등⁷⁾은 의상관련 학과 명칭별 전공비율에 관한 분류를 하였다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상관련학과의 명칭별 전공영역의 비율⁸⁾

(단위 : %)

전공영역 학과	의 상 디자인	의 복 구 성	복 식 사회학	피 복 과 학	기 타
의류학과	19.0	27.4	17.6	23.6	9.7
의생활학과	18.5	24.0	19.0	26.0	12.5
의상학과	28.0	27.3	17.9	15.5	11.3
의상디자인	35.4	21.6	17.5	11.3	14.2
의류직물	15.5	28.5	18.0	30.5	9.5

〈표 3〉에서 볼때 학과명에 따라 전공영역별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편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디자이너 및 MD로 일하면서 가장 실무에 도움을 준 분야에 관한 문항에서 의복구성분야가 33%였으

〈표 4〉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전공영역

전 공 영 역	응 답 자(명)	응 답 자(%)
의 복 구 성	24	33
디 자 인	23	32
피 복 과 학	21	28
기 타	5	7

며 디자인 분야가 32%, 피복과학 분야가 28%, 기타 분야가 7%였다. 이 결과에서 모든 영역이 골고루 실무에 응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류학과 및 의생활학과는 의상 디자인 분야의 과목이 강화되어야 하며 의상학과 및 의상디자인 학과는 피복과학 분야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무를 위해 대학 교과목에 보충되어야 할 과목으로 색채 실습, 직물소재, CAD, 코디네이트, 마아켓팅을 지적하였으며 실무 경험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소수 의견으로 어학 과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도규화등⁹⁾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3. 사설학원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재학기간중 응답자의 85%가 방학기간중에 사설학원에 다녔다고 응답하였으며 수강과목은 일러스트레이션, 의복구성, 의상디자인, 포트폴리오작성, 크로키 등 다양하였다. 사설학원에 다닌 이유로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43%가 학기중에는 시간이 부족하

〈표 5〉사설학원의 효용성에 관한 결과

문항구분	내 용	응 답 자(명)	응 답 자(%)
재학당시 방학기간 중 사설학원 수강여부	수강했다	62	85
	수강하지 않았다	11	15
수 강 이 유	실기를 보강하기 위해	27	43
	학교의 교과목이 불충분해서	23	37
	기 타	12	20
사설학원 수강의 실무수행 효용 여부	실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	23	31
	실무업무 수행에 필요하지않다	50	69

여 실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다녔다고 응답하였으며 37%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으로는 불충분해서 다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방학중 사설학원을 통한 보충이 실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1%에 불과하였다. 이유는 실무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학원에서의 교육은 기술위주로 디자인에 필요한 아이디어 전개에 대한 훈련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의상관련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졸업 작품전의 실태와 효용성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전공영역과 사설학원의 효용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졸업 작품전은 발표회의 형태 또는 전시회의 형태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에 따라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작품전은 작품 발표회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이너 및 MD로 일할 경우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전공 영역이 꿀고루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영역을 모두 활용한 작품전이 시행되어야 하며 비용에 따른 장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이용에 대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전공영역은 의복구성, 디자인, 피복과학, 기타분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간의 차이는 근소하여 모든 영역이 꿀고루 실무에 응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복과학의 경우 다른과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용되는 반면 의상학과와 의상디자인학과에서

는 교과목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은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학과들의 피복과학 영역의 비중이 더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재학당시 사설학원의 과목을 수강한것으로 나타났으나 효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 과목의 실기 평가가 기술적 측면보다는 아이디어 전개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업무 수행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지역에 한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으며 디자이너 및 MD에만 국한되어 패터니스트등 다른 업종의 전문인들의 의견은 수렴할수 없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의상관련 학과의 졸업작품전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교과목 구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개선에 대한 자료가 될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철호, 제품 IMAGE PLANNING 방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 2) 한국 대학 연감, 일진기획, 1992.
- 3) 정시화, 연대 디자인 연구, 서울, 미진사, 1982, pp. 7-8.
- 4) 김종자, 전문대학 의상 디자인 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문교부 학술 연구 논집, 1985.
- 5) 박현신, 한국 복식 디자인 교육의 실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 6) 도규희 외, 복식 산업 발전을 위한 패션 전문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 복식학회지 2제 23권, 1994, pp.229-233.
- 7) 도규희 외, 앞의책, pp.230-233.
- 8) 도규희 외, 앞의책, p.233.
- 9) 도규희 외, 앞의책, pp.238-240.